

화제의 책

# 몰락하는 중산층 어떻게 살릴까... 반스 '시민배당'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천착해 온 저술가이자 기업가인 피터 반스는 중산층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제 시민배당(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스는 이 책을 통해 공유제 시민배당이 어떻게 중산층을 살리고, 승자독식 자본주의가 아닌 앞으로 태어날 이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로 나아가는지 그 해법을 보여 준다.

헬조선과 휴수저,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상징하는 현 시대 신조어들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반스에 따르면, 미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상위 20퍼센트 계층이 전체 부의 8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현실을 보면서 누구라도 "중산층은 어



디에 있지?'라고 묻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중산층은 없으며, 우리는 대부분 원치 않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반스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퍼진 불평등은 그저 부의 소유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여러 연

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극히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평등한 사회에 비해 살인, 비만,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약물 남용, 영아 사망, 미성년자 임신이 더 많이 발생한다.

반면에 도전 정신은 사라진다. 경제 체계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고자 하는 희망을 품는 건 고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살 수 있다는 믿음마저 잃어버린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더슨은 "중산층은 공공 자유의 기반이며 공공 안전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중산층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 자체도 더욱 자유롭고 자립적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희망도 사라진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그렇다면 중산층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중산층이 살아남을까? 창조경제가 성공하면 부의 양극화가 해소될까? 반스는 정부와 연구소들이 여러 정책

을 담은 보고서를 분주히 찍어 내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효과를 냈던 정책을 다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들이 저마다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세우고 교육과 혁신에 힘을 쏟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부르짖지만, 이런 대안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극단적 불평등이 현재 우리 경제 체계에 내재한 숙성이라면, 대응책을 생각해 낼 때도 더 신중해야 한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자녀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모두에게 직업을 준다 해도 다수의 중산층을 오래 지탱할 수 없으며, 소득은 상위 계층을 향해 계속 흘러가다가 체계가 붕괴한 뒤에야 멈출 것이다.

피터 반스는 덜 불공평한 결과를 얻으려면, 균등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체계 안에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승수 옮김, 224쪽, 1만4000원, 갈마비람

/김민근 기자

## 무더위를 날려버릴 파워풀 난타전 남원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욕망의 불꽃'

남원시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6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난타전 '욕망의 불꽃'이 개최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대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난타분과)의 대표적인 타악 공연대회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9개의 난타 동호회가 참가한다. 도내 동호회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망이 높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무더위를 잊게 하는 파워풀한 난타를 통하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장미와 무더위를 지친 이따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난타전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국악, 무용, 미술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여개의 동호회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포켓몬 고' 신드롬 낀 AR게임 국내업계 관련 게임 전무...IP 부족도 고민

'포켓몬 고'가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면서 AR 게임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 따르면 AR 게임 장르는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지만 영미권에서는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도 AR 게임 개발에 뛰어들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9년까지 글로벌 증강현실 시장이 약 700억 달러(한화 약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R 장르가 생소하다. 가상현실(VR) 게임과 인공지능(AI) 게임은 다수 개발되고 있지만 AR은 미개척 분야나 마찬가지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회사에서도 AR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VR게임 등의 신종 장르와 관련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시장동향 파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VR 게임 장르도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라 AR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과 수익성 전망, 포켓몬 고의 인기 지속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부족한 지적재산권(IP)도 AR 게임 개발의 고민이기도 하다. 포켓몬 고의 인기가 게임성보다 포켓몬 캐릭터에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포켓몬 고 개발사는 캐릭터만 다른 '인그레스'란 동일한 AR 게임을 선보였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포켓몬 고 열풍 배경은 IP의 힘이 가장 크다. 20~30대에게 포켓몬이란 IP 자체가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AR이란 장르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을 줄여준 것이 포켓몬 IP"라고 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래곤볼이 1인칭 총격게임 '스켈포스' IP를 활용한 AR 게임을 이르면 연말 선보인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드래곤볼이 관계자는 "스켈포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태국, 동남아시아 권역에 1억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게임이라 AR 버전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며 "스켈포스뿐 아니라 영실업의 인기 자동차 로봇 '포봇'과 인형 '시크릿쥬쥬'까지 AR 게임으로 만들어 이용자 연령대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남자는 바흐를 듣고 여자는 바흐를 느꼈다'

### 현대인 아픔 그려낸 소설 출간

〈남자는 바흐를 듣고 여자는 바흐를 느꼈다〉는 정제성 혼란을 겪으며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근원적 아픔을 그려낸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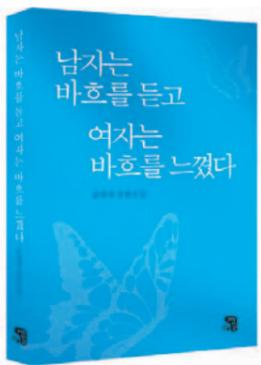
이 책에는 출세로 대변되는 인간의 권력의지와 관습처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남녀 간의 사랑 행위,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막연한 꿈들이 소설 제목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향한 거대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서로 그 목적이 불분명해서 각자 다른 시선과 방향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주인공을 빌어 그 과정에서 갈등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소설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지방대학 사립대학 교수로 있는 주인공 성진이 몸담고 있는 대학 총장 선거이며, 또 다른 한 축은 성진이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주변 인물들 간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소설 속에서는 바흐 음악을 비롯해 상황에 따라 음악이 자주 등장한다. '바흐'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꿈일 수도 있고,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취향이나 관심사일 수도 있다.

/정해은 기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과거와 현재의 20대 청춘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딛고 살아야 하는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세대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고달픈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막연한 꿈을 꾸다.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다른 기억을 갖게 되며, 그럼으로써 갈등하고 방황하고 마침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작품의 묘미는 주인공이 사랑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또다시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점이다.

## 민속국악원, 청소년 수강생 모집... 29일까지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이 2016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국악아, 방학을 부탁해!)를 개설하고 수강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악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8일~12일 5일간 오전 10~12시 국립민속국악원 연습실에서 열리게 된다.

수업은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4~6학년 20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프로그램

은 우리 전통 전래놀이인 칠고놀이·단심놀이·투호놀이·웃놀이·개쫓다리기·강강술래 등을 비롯 한국무용과 난타가 접목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장악과 063-620-2319 또는 누리집(<http://namwon.guga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이며, 교통편은 국악원에서 무료로 운행할 셔틀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완주문화재단, 19일 예술단체 실무자 워크숍

(재)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37개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네트워크 워크숍을 19일 연다.

'영상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워크숍에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문화관련 기관 단체 실무자들과 영상미디어 전문가가 참석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촬영, 편집기술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완주군민들이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 허브로서의 기능을 갖춘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에 대한 공간탐색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재단은 워크숍이 군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토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단체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및 실무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 '싱커' 배미주, '바람의 사자들' 출간

'싱커'로 제3회 예비청소년문학상을 받았던 작가 배미주(47)가 6년만에 신작 '바람의 사자들'을 출간했다.

그때 비단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기록에 희미하게 남은 수백수천 년 전 일이 세 편의 소설로 재구성된 이야기다. 애지중지한 우리기술을 만든 장인, 사막 너머 사막카라트까지 흘러든 당나라 병사, 황제의 명으로 서역을 찾아 떠난 한나라 원정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한 작가의 손끝에서 운명에 맞서는 개성적인 주인공들로 되살아났다.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8일)

<p><b>▷ 쥐띠</b> 46년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후반에는 잘 해결될 것이다. 60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다. 72년생: 처음에는 서로 호의적이거나 나중에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 84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일이 발생하니 언쟁을 피하라.</p>	<p><b>▷ 소띠</b> 49년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운. 61년생: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좀 더 넓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p>	<p><b>▷ 호랑이띠</b> 50년생: 원형은 삼가고 자중해야. 62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는 편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좋다. 86년생: 90%가 이루어져도 나머지 10%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범심은 금물.</p>	<p><b>▷ 토끼띠</b> 51년생: 지기의 말만 앞세우지 마라. 63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 75년생: 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때. 87년생: 금전적으로는 평한 운.</p>
<p><b>▷ 용띠</b>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4년생: 원형에는 의견이 없으나 손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나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운.</p>	<p><b>▷ 뱀띠</b> 53년생: 아직은 원하는 것을 얻는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접고 때를 기다려라. 65년생: 자신이 혼자 판단하면 실패수가 따른다. 77년생: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욕심내는 때. 89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운.</p>	<p><b>▷ 말띠</b> 54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 66년생: 재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으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마음을 열라. 90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주변을 조심하며 원형은 삼가라.</p>	<p><b>▷ 양띠</b> 5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67년생: 큰 욕심을 부리면 운이 막힌다. 79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때다. 91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 원숭이띠</b> 5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히 대하라. 68년생: 처음에는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 고전한다. 80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좋은 날. 92년생: 손해본 만큼 회복이 되는 운이다.</p>	<p><b>▷ 닭띠</b> 57년생: 한번 일에서 나온 말은 꼭 지켜야. 69년생: 경거망동 하면 구실이 따른다. 81년생: 고집은 금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93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는 운.</p>	<p><b>▷ 개띠</b> 46년생: 무리한 요구는 인간 관계에도 안좋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기혼자는 부부불화가 예상된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결손함이 꼭 필요한 운이다.</p>	<p><b>▷ 돼지띠</b> 47년생: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나. 59년생: 앞뒤가 막혀있는 운이니 때를 기다리며 자중해야. 71년생: 비뻔일은 있으나 성과는 약한 운이니 마음을 비워라. 83년생: 뒷사람의 조언과 함께 움직여라.</p>